

보육정책, 아이와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다

‘영유아기에 대한 종합투자전략, 아이사랑플랜을 소개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I. 시작하며

2008년 3월부터 영유아 보육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면서 보육정책관실 전 직원은 보육정책의 개념부터 기존의 구체적 정책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정책 비전을 도출하게 되었고 ‘아동중심성’이라는 소중한 정책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노력들을 담아 아이사랑플랜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1년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무언가 그럴 듯한 것을 내보여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담고자 했습니다.

II. 아이사랑플랜 개요

아이사랑플랜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으로 개편하기 위해 새싹플랜(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2006-2010)을 보완한 것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비전은 보육정책의 주인공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인 아이와 부모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복지부의 다짐과 선언입니다.

〈비전 :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

(아이) 아이는 보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목표이자 정책대상

(부모) 부모는 아이를 돌보는 책임과 권리를 가진 제1차적 보호자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 아이는 나이와 특성에 맞게 건강하게 성장발달하고, 부모는 아이를 기르는 보람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마련된 세상

아이와 부모가 행복해 지기 위한 3가지 전략으로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 중심전략, 적어도 아이 키우는 것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국가책임강화 전략, 수요자와 공급자가 믿을 수 있어야 정책이 의도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신뢰기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이사랑플랜 3대 전략〉

(영유아 중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최우선시

- 정책대상을 보육시설 아동에서 모든 영유아까지 확대

- 영유아 및 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맞춤·통합형 보육정책 추진

(국가책임제 보육)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

- 참여정부에서 조성된 공보육에서 진일보하여 국가책임보육으로 발전

(신뢰기반) 신뢰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추진

- 부모, 시설, 정부, 학계가 정책에 대한 신뢰 기반을 구축하여 협업, 정책수용성 제고

III. 아이사랑플랜 주요 추진과제

아이사랑플랜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6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아 그간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2012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80%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수요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다문화, 한부모(미혼모, 조손 포함), 장애, 빈곤 등 아이와 부모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보육시설 질 제고 및 균형 배치입니다. 집근처에 있는 어느 보육시설이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ی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보육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평가인증 활성화와 부모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보육시설을 균형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넷째,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보육교사는 아이의 첫 선생님이므로 아이의 초기 정서 및 인지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보육교사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여건에 처해 있는 역설적 상황을 바꾸기 위해 보육교사가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전달체계의 효율화입니다. 보육전자바우처(i-사랑카드) 도입 등을 통해 부모는 보육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고 보육시설과 지자체는 행정업무 부담을 덜게 되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보육사업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보육정책 연구를 외연적으로는 확장하고 내포적으로는 심화시켜 통합적 육아지원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사업 지원기능의 통합, 보육시설안전공제회 설립, 부모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보육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IV. 마치며

아이사랑플랜은 향후 보육정책의 방향을 거시적 차원에서 제시한 보육정책 청사진입니다. 크게 그리려 하다 보니 곳곳에 빈 구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사이를 채워야 할 것은 정책담당자의 몫이기도 하지만 부모, 보육시설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채워져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사랑플랜이 어느 중장기 계획처럼 서류작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가 꿈꾸는 바람직한 보육의 미래상이자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참고】 아이사랑플랜 비전 및 추진과제 체계도



[참고2] 아이사랑플랜과 새싹플랜의 차이

▶ 강화된 내용

-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의 확대를 통해 보육비용 부담 완화
 - 새싹플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에 한정,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까지 차등보육료 지원을 목표
 - 아이사랑플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80%로 확대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양육수당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

▶ 변경된 내용

- (보육료 지원방식) 시설별 지원(기본보조금)과 이동별 지원(차등보육료)으로 이원화된 보육료 지원을 보육료로 통합하여 i-사랑카드 통해 부모에게 직접 지원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새싹플랜은 이용아동 30%를 목표로 국공립 확충을 계획하였으나, 아이사랑플랜은 민간보육시설의 국공립 수준의 질 향상을 목표로하고 국공립은 취약지역 위주로 설치

▶ 추가된 내용

- (다문화아동 지원) 취약계층으로 다문화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 (안전공제회 설립)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 제도화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대체교사 및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지원
- (선정기준 개편) 보육비용 지원대상자 선정시 불필요한 서류간소화 및 기준 합리화
- (지도감독 개선) 불법행위 적발이 아니라 소통강화를 통한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방향 개선

▶ 지속·보완되는 내용

- 평가인증, 건강·영양·안전, 보육프로그램 강화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사항은 지속 보완

2009년도 유아교육 분야 세부 업무추진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I. 들어가는 말

최근 출산율 저하로 유아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유치원 이용률은 '05년 31.5%에서 '08년 38.4%로 증가하는 등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국가 인적자원의 조기개발과 생애초기 단계의 전인교육을 위하여 유치원 취원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나 한편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는 우리 국가·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이다.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07년 기준 소득 1분위 월평균 자녀교육비용은 10분위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향후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는 교육비 지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또한, 조손가정 및 한부모 가정 증가 등 가족 해체 현상도 급증하여 부모 역할을 보완해 줄 따뜻한 손길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유치원 종일반을 90% 수준까지 확대 설치하였으며 공립 단·병설 유치원의 신·증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만3~4세아 차등교육비 및 만5세아 무상교육비도 해마다 증액하여 유아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주력하였다.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 개발·보급, 사립유치원 교재 교구비 지원 사업 및 종일제 보조인력(3세대 하모니) 사업도 유치원 현장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를 갖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기반이 아직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